

7. Graves 병에서 항갑상선제 치료후 예후판정에 관한 검토

서울의대 내과

이동수 · 박경수 · 오연상 · 박성기
이명철 · 조보연 · 고창순 · 이문호

Graves 병에서 항갑상선제 치료후의 관해율, 치료기간과 재발율과의 관계 및 예후판정과 지표로서의 T_3 억제검사와 TRH 자극검사의 유용성등을 검토하고자 서울대학교병원 갑상선클리닉에서 Graves 병 환자 64명(11세~65세, 남자 14명, 여자 40명)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6년 2개월까지 항갑상선제를 투여하고 투약 종료후 다시 6개월에서 4년까지 추적하여 추적도중 T_3 억제검사와 TRH 자극검사를 시행하고 재발 및 관해여부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64명의 환자중 총 17명이 재발하였다. 64명의 환자가 모두 추적기간이 다르므로 추적도중 탈락한 환자들을 모두 관해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집적 재발율은 투약종료후 1년, 2년, 3년에 각각 10.9%, 25%, 26.6%이었다. 또한 추적도중 탈락한 환자들이 각 기간에 추적 가능했던 환자와 같은 정도로 재발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추정한 집적 재발율은 투약종료후 1년, 2년, 3년에 각각 12%, 37.5%, 43.7%이었다.

2) 치료기간이 1년이내, 1~2년, 2~3년, 3년이상인 예들의 재발율은 각각 42.9%, 27.6%, 25.0%, 18.8%로서 치료기간이 길 수록 재발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치료후 시행한 T_3 억제검사는 62명중 39명(63%)에서 억제됨을 보였고, 억제되는 환자에서 투약 종료후 3년째의 재발율은 25%, 억제되지 않은 환자의 재발율은 86%이었다($p < 0.001$).

4) 치료후 시행한 TRH 자극검사는 40명중 23명(58%)에서 반응을 보였으며 반응환자의 재발율은 23.5%, 반응을 보이지 않은 환자의 재발율은 68%이었다($p < 0.001$).

5) T_3 억제검사와 TRH 자극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40명의 환자에서 30명은 T_3 억제가능성과 TRH 자극반응성이 모두 회복된 결과를 보였고 10명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중 T_3 억제는 되나 TRH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9명의 환자에서는 7명이 관해상태를 유지하여 질병의 예후는 T_3 억제가능성의 회복에 더욱 관련된 것 같았다.

6) 양쪽 검사에 모두 반응을 보인 환자군의 재발율은 15% 모두 무반응인 환자군의 재발율은 94%이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Graves 병에서 항갑상선제 치료후 관해율은 치료기간 및 추적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T_3 억제검사와 TRH 자극검사 모두 예후판정에 유용한 지표로 생각되었다.

8. 항 thyroxine 항체를 수반한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2예

서울의대 내과

문대혁 · 임성희 · 서교일 · 조보연
최성재 · 고창순 · 이문호

최근 항 T_4 및 항 T_3 항체가 갑상선질환 환자들의 혈청내에서 증명되었으며 이 항체들로 인하여 T_4 , T_3 의 방사면역측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측정됨이 밝혀져 그 임상적 의의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에서는 항 T_4 및 항 T_3 항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유발인자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보고가 없다.

언자들은 만성 갑상선염을 동반한 전신성홍반성낭창 환자와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항 T_4 및 항 T_3 항체를 알콜 추출법 sephadex column chromatography 및 전기영동법으로 증명하고 임상경과에 따른 변화를 살펴 보았다.

1) 증례 1은 전신성홍반성낭창 환자(28세, 여자)로서 2중항체법에 의한 T_3 , T_4 치는 각각 310 ng/dl, 25 μ g/dl 이었고 혈청 TSH치는 15.5 μ U/ml로 증가되어 있었다. 한편 PEG 분리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T_3 , T_4 가 측정되지 않았다. 혈청내 감마글로브린을 알콜로 추출한 후 T_3 , T_4 를 측정한 결과 T_3 치는 PEG 방법으로는 32 mg/dl, 2중항체법으로는 38 ng/dl 이었으며 T_4 치는 PEG 법으로는 5.8 μ g/dl, 2중항체법으로는 6.5 μ g/dl 이었다. 혈청을 125 I- T_4 와 반응시킨후 cellulose acetate 전기영동과 sephadex G-200 column으로 분리한 결과 대부분의 125 I- T_4 와 일부 125 I- T_3 가 감마글로브린-G분획에 나타나 항 T_4 및 항 T_3 항체를 환인할 수 있었다.

2) 증례 1에서 prednisolon 사용 6개월후 2중항체법에 의한 T_3 , T_4 치는 각각 82 ng/dl, 13.0 μ g/dl 이었고 PEG 법에 의한 T_3 , T_4 치는 각각 92 ng/dl, 1.6 μ g/dl 이었다. 알콜추출후의 T_3 치는 PEG 법으로 74

ng/dl, 2중항체법으로 80 ng/dl 이었고 T₄치는 PEG 법으로 5.6 μg/dl, 2중항체법으로 6.9 μg/dl로서 항 T₃항체는 소실되었으며 항 T₄항체는 그 역가가 감소되었다. 이를 cellulose acetate 전기영동법과 sephadex G-200 column chromatography 법으로 확인하였다.

3) 증례 2는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로 2중항체법에 의한 T₃, T₄치는 각각 65 ng/dl, 30 μg/dl 이었고 PEG 법으로는 각각 37 ng/dl, 0.1 μg/dl로서 항 T₄항체를 갖고 있었다. 알콜추출후 PEG와 2중항체법으로 측정된 T₄치는 각각 2.4 μg/dl, 3.2 μg/dl 이었으며 ¹²⁵I-T₄와 반응시킨후 cellulose acetate 전기영동법 및 sephadex G-200 column chromatography 법으로 분리하여 ¹²⁵I-T₄가 감마글로브린 4분획에 동합을 확인하므로써 항 T₄항체를 증명하였다.

9. 갑상선 임파종 1예

경희의대 내과

최성근 · 양인명 · 김영설 · 김광원
김진우 · 김선우 · 최영길

갑상선 임파종은 갑상선의 악성종양중 매우 드문 종양이고, Hashimoto's thyroiditis와 잘 동반되므로 진단에서 먼저 고려되지 않거나 오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갑상선 임파종은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 예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임상가나 병리학자들의 관심과 의심이 축적되고 있는 바, 본 경희대학교 내과학교실에서 경험한 갑상선 임파종 1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89세 여자로서 최근 2주일간 급성장하는 전경부 종괴와 이에 동반된 호흡 및 연하곤란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갑상선 기능의 이상을 시사하는 증후 및 이학적 소견은 없었고, 태아 머리카기의 매우 단단하고 압통이 없는 종괴가 갑상선 부위에서 촉진되었으나 주위 경부임파선의 증대는 없었다.

혈청 T₃ 99 ng/dl, T₄ 6.4 μg/dl, TSH 3.7 μU/ml, thyroglobulin antibody 1 : 10,000이었으며, 갑상선 스캔상 주위 조직과 전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갑상선의 육소 섭취가 관찰되지 않았다. 세침흡인세포검사상 Hashimoto's thyroiditis를 시사하는 소견과 함께 매우 미분화된 핵을 갖는 undifferentiated cancer로 생각되었고, 생검상도 undifferentiated cancer로 진단되었으나, 급성장하는 종양이란 점과 자가항체농도가

높고, Hashimoto's thyroiditis의 세포학적 검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는 임파종이라고 생각하고 방사선 조사법을 시행하여 종양은 2주내에 완전히 사라졌다. 2개월후 다시 경정맥 주위 임파선 증대가 발생하여 조직생검을 시행한 바 임파종으로 진단되었다.

10. 당뇨병망막증에서의 방사성핵종 망막 신티그라피의 의의에 관한 연구

고려의대 내과

이형호 · 김열홍 · 이상우 · 박영태
안일민 · 박승철 · 서순규

고려의대 구로병원 동위원소실
최 승 환

당뇨성망막증은 실명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이의 조기진단과 치료시기의 결정은 환자의 예후판정에 중요하다.

당뇨성망막증을 진단하는데 있어 종래에 흔히 사용되어 왔던 검안경법은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플루어레스신 혈관조영술의 경우는 정량적이지 못하며 조기진단이나 예후판정의 의미보다는 이미 일어난 현상만을 관찰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당뇨병망막증의 조기변화로 혈액망막 관문의 붕괴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준임상적 누출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Tc-99m DTPA를 정맥주사한 연후 뇌주사제의 망막혈관내 침착여부에 의한 Eye/Brain ratio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사성핵종 망막신티그라피를 시행, 이들 측정치간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 하였다.

1) 대상 54예중 당뇨병환자는 31명, 고혈압환자 7명, 그리고 정상대조군은 16명이었고, 당뇨병환자군 31명중에서 검안경상 망막증이 없는 경우는 19명, Background 망막증환자가 9명, proliferative 망막증환자는 3명이었다.

2) 정상대조군에서 E/B ratio의 평균치는 1.66(SD 0.18), 망막변화가 없는 당뇨병환자군의 E/B ratio의 평균치는 1.79(SD 0.28), Background 망막변화를 보이는 군의 E/B ratio의 평균치는 1.85(SD 0.28), 그리고 proliferative 망막변화를 보이는 군의 E/B ratio의 평균치는 2.24(SD 0.34)로 나타났으며, 이로서 검안경하에서는 망막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당뇨병환자군에서도 E/B ratio는 정상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01), proliferative 망막변